



▲ '서브노티카 2' 트레일러 이미지. [사진=언노운 월드 공식 홈페이지]

## 해양 탐사 기대작 '서브노티카 2' 5월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확정



▲ 'SUBNAUTICA 2' 스팀 상점 이미지. (사진=스팀 상점 홈페이지)

크라프트 산하 스튜디오 언노운 월드(Unknown Worlds)는 해양 생존 어드벤처 게임 '서브노티카 2'의 얼리 액세스 출시일을 오는 5월 15일 0시로 발표했다.

서브노티카 2는 언노운 월드의 서브노티카 시리즈 신작으로, 새로운 외계 행성에서 펼쳐지는 수중 생존 어드벤처 게임이다. 플레이어는 심해를 탐사하며 자원을 수집하고 장비와 해저 기지를 제작해 생존해야 한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큰 변화는 시리즈 최초로 최대 4인 협동 플레이를 공식 지원하는 점이다. 기존 '서브노티카'가 고립된 환경 속에서 1인 탐험과 심해 공포를 강조했다면, 이번 작품은 다른 이용자와 함께 탐사와 기지 건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유니티 엔진이 아닌 언리얼 엔진 5를 사용해 개발한다. 이를 통해 그래픽 더욱 자연스러워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생물들의 움직임 역시 단순한 반복 패턴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 반응하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진은 약 2~3년간 얼리 액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생물군계와 생물, 제작 아이템, 기능, 스토리 콘텐츠 등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며 게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업데이트 방향을 조정하고, 공식 디스코드 채널 등을 통해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카카오게임즈 '에버소울' 6월 30일 서비스 종료



▲ '에버소울' 메인 이미지. [사진=카카오게임즈 공식 홈페이지]

나인아크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한 미소녀 수집형 RPG 게임 '에버소울'이 오는 6월 30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9일 공식 카페를 통해 서비스 종료 일정을 공지했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카카오게임즈와 나인아크는 "양사의 사업적 판단하에 에버소울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라고 밝혔다.

에버소울은 지난 2023년 1월 출시된 서브컬처 수집형 RPG다. 이용자는 '구원자'가 되어 다양한 정령 캐릭터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며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 포스트 아포칼립스와 판타지 세계관을 결합한 설정과 캐릭터별 인연 스토리, 영지 시스템 등을 앞세워 출시 당시 사용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출시 직후 국내 앱 마켓 인기 순위와 매출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흥행작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라이브 2D 기반 캐릭터 연출과 높은 수준의 일러스트, 서브컬처 감성을 강조한 콘텐츠 구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지만, 결국 약 3년 반의 서비스를 끝으로 종료하게 되었다.

운영진은 서비스 종료 전까지 이용자 보상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이용자에게 게임 재화인 '에버스톤'을 지급하며, 원하는 정령을 선택해 소환할 수 있는 픽업 이벤트도 함께 실시한다. 또한 일정 기간 내 구매한 일부 유료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 접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 넥슨재단 - 대전시사회서비스원 사회공헌 협약 체결



▲ 업무협약식 현장 이미지. [사진=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공식 홈페이지]

넥슨재단과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경계선 지능 청소년·청년 등을 지원하는 'ON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ON 프로젝트'는 대전(DAEJEON)과 넥슨(NEXON)의 이름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ON'에서 착안한 프로젝트다. 온라인 기반 연결과 사회적 가치,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넥슨재단은 그동안 어린이 재활 지원 사업과 코딩 교육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이번 협약 역시 게임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대전시사회서비스원은 대상자 발굴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넥슨재단은 게임 콘텐츠와 교육 자원을 활용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대전시사회서비스원장은 "장애아동과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자기표현과 디지털 배움의 기회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